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



보도	2025.12.4.(목) 14:00	배포	2025.12.4.(목)		
담당부서	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정영락	(02-3145-7790)
		담당자	팀 장	권순표	(02-3145-7770)
	보험검사2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서창대	(02-3145-7680)
		담당자	팀 장	임재동	(02-3145-7510)

##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「'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」 개최 -

### I 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'25.12.4.(목) 14시,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「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\*」을 개최하였습니다.

\* '15년부터 반기별로 개최

-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·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
-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·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.

#### '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요

구 분	내 용
일 시	'25.12.4.(목) 14:00 ~ 18:00
장 소	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
참석자	보험회사 감사담당 부서장 등 (생보 22개사, 손보 17개사)
주 요 제	<b>①</b>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 <b>②</b>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·과장 광고 근절 <b>③</b>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

## II. 주요 내용

### 1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

-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\*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,

\* '25.7.3. 대형 보험회사(자산총액 5조원 이상)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'25.11월 중 일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

-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·운영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.
- 한편, 참석자들은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'진짜 소비자 보호'를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,
  -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상품 설계·심사·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### 2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·과장 광고 근절

- 금융감독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, 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
  - 방송매체,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하여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.
- 특히,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
  -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,
  - 그간 보험회사가 단기실적에만 집중한 채 보안체계 강화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,
  -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어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### Ⅲ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**(기대효과)** 이번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·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
  -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‘소비자 보호’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**(향후계획)**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워크숍,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,
  -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, 내부통제 체계구축·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.